

#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결 정

사 건 명 19-직권-00003 부적절 발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 해 자 ○○○○학교 ○○○, ○○○

피 조 사 자 ○○○○학교 교사 ○○○

## 주 문

###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조사자가 피해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신분상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나.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원이 위와 같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인권감수성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2. ○○○○학교장에게

가. 피조사자가 피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이 낮은 것이 그 원인이므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해학생들의 회복을 위한 대책(학생인권교육센터 등과 협의)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I. 직권조사 개요

### 1. 직권조사 실시 배경

2019. 3. 19.(화) ○○교육지원청이 ○○○○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하였다고 학교폭력사안보고를 하였다.

2019. 3. 25.(월)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피해학생, 참고인 면담 등을 진행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다.

기초조사 결과,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사실임을 알 수 있고, 두 명의 피해학생에게 시기를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

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직권조사 개요

가. 피해자 : ○○○○학교 ○○○(○-○피해학생 1.), ○○○(○-○, 피해  
학생 2.)

나. 피조사자 : ○○○○학교 교사 ○○○○

다. 사건 요지

1) 피조사자는 2019. 3.경 피해학생 1.에게 “엄마 친구들 소개해 달라”,  
“학교 선생님들이랑 너희 어머니랑 어머니 친구들이랑 너희 가게 가서 술  
마셔야겠다”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2) 피조사자는 2018. 9.경 당시 ○학년인 피해학생 2.에게 “엄마 몇 살  
이나”, “엄마 소개해 달라”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 3. 직권 조사 방법

가. 조사방법 : 관련자 면담조사, 학생 면담조사 등

나. 조사 경과

- 2019. 3. 19.(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폭력사안보고
- 2019. 3. 25.(월) 기초조사 - 피해학생, 참고인 면담 등
- 2019. 4. 1.(월) 기초조사보고
- 2019. 5. 1.(수) 직권조사 사건 접수 및 직권조사 결정 통보
- 2019. 5. 7.(화) 피조사자 면담조사

## II. 학생 인권침해에 관한 판단

### 1. 관련 법령

[붙임 1]과 같음

### 2. 당사자와 참고인들의 주장

#### 가. 피해자들의 주장

##### 1) 피해학생 1.

사건요지 1)항과 같음

##### 2) 피해학생 2.

사건요지 2)항과 같음

#### 나. 피조사자의 주장

사건요지1), 2)항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없고, 2019. 3.말경 학교에 제출한 경위서는 잘못 쓴 것이다.

※ 피조사자가 학교에 제출한 경위서 주요 내용

피해학생 1.이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하여 면담하였는데, 음악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이 진정이 되어 “○○에 사니”, “부모님은 뭐 하시냐”, “(부모님이)몇 살이시냐”고 물었음. “어머니가 선생님보다 젊으시네” 하니까 “진짜요?” 했고, “예전에 어떤 학생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어머니 친구를 소개해 줘라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 하니 “진짜요?” 하기에 “그럼 너네 어머니 친구들이 나보다 젊으니 소개해줘야겠네” 하면서 같이 장난을 치며 이야기 했음. 옆에는 사감선생님도

계셨는데, 아버지가 주막을 하신다고 하여 “나중에 ○학년 회식을 거기서 할 테니 너가 메뉴를 추천해 줘라” 며 이야기 나눈 사실이 있음.

#### 다. 참고인들의 주장

##### 1) ○○○○○학교 ○○○(○학년)

피조사자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서 입학 후 첫 주 평일(3월 6~8일 경) 저녁, 기숙사에서 피해학생 1.에게 직접 들었는데, 피해학생 2.와 같이 들었다.

당시 들은 내용은 피조사자가 피해학생 1.에게 엄마 친구들을 소개해 달라고 하고, 엄마랑 엄마 친구들이랑 회식할 때 피해학생 1.네 가게에서 함께 술 마셔야겠다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피해학생 1.에게 피조사자가 한 말을 듣고, 피해학생 2.도 작년에 똑같은 말을 피조사자에게 들었다고 이야기하여, 더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기로 했다.

##### 2) ○○○○○학교 ○○○(○학년, 피해학생 2.)

3월 5일이나 6일, 피해학생 1.이 기숙사 방으로 와서 이야기했는데, 피조사자가 피해학생 1.에게 엄마 친구들을 소개해 달라, 회식할 때 피해학생 1.네 가게에서 엄마랑 엄마 친구들이랑 함께 술 마셔야겠다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 3) ○○○○○학교 교사 ○○○

2018년 피해학생 2.의 담임이었다. 2018. 9.경 피해학생 2.와 흡연 문

제로 상담한 후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본인이 피조사자와 카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조사자도 함께 식사하였다.

식사하고 나가면서 본인이 농담처럼 “피조사자가 아직 총각인데 여자친구도 못 만나고 여기 있다”라는 식으로 말했던 것 같고, 피해학생 2.가 “아직 결혼 안 했어요?”하자, 피조사자가 “소개를 해주던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지나가는 농담이었던 것 같다.

### 3. 인정사실 및 판단

#### 가. 총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은 학교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9조 제1항은,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은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나. 인격권 침해 여부

피조사자와 피해학생들, 참고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 가능하다.

#### 1) 사건요지 1)에 대한 사실관계

2019. 3. 첫째 주경 피조사자가 기숙사에서 피해학생 1.을 면담하며 부모의 직업과 나이를 물었고, 피해학생 1.의 어머니 나이를 듣고 “나보다 젊네”라고 말하고, 피해학생 1.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주점)로 “○학년 선생님들끼리 회식하러 들릴게”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피조사자와 피해학생1.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학생 1.은 피조사자가 어머니의 나이를 묻고, “나보다 젊네”, “딱 좋네”라고 하였고, “엄마 친구들 좀 소개해 달라.”, “학교 회식할 때 너희 어머니랑 어머니 친구들이랑 너희 가게 가서 술 마셔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학생1.의 주장에 대해 2019. 3.말경 피조사자는 “어머니가 선생님보다 젊으시네”, “그럼 너 네 어머니 친구들이 나보다 젊으니 소개해줘야겠네”라고 장난스러운 이야기가 있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학교관리자에게 제출하였으나, 면담조사에서는 ‘본인이 경위서를 쓰기는 했지만 어머니 친구 이야기 등은 잘못 쓴 거 같다.’며 피조사자 본인이 작성한 경위서 내용을 번복하였다.

반면, 피해학생 1.이 피조사자와 면담 후 바로 기숙사 방으로 와서 피해학생 2.와 참고인 ○○○ 학생에게 피조사자가 ‘어머니 친구들을 소개시켜달라’,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들과 술 한잔 해야겠네’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피해학생 1.의 진술과 피해학생1.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 2) 사건요지 2)에 대한 사실관계

피해학생 2.는 사건요지 1)에 앞선 2018. 9.경 피조사자, ○○○ 교사와 중화요리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피조사자가 피해학생 2.에게 “엄마 몇 살이냐”, “엄마 소개해 달라”라고 하여, 너무 기분이 나빠서 더 식사를 하지 않았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조사자는 피해학생 2.에게 엄마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며, 피해학생 2.가 왜 본인을 지목해서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식사자리에 동석하였던, 참고인 ○○○ 교사는 식사자리에서 본인이 농담처럼 “피조사자가 아직 총각인데 여자친구도 못 만나고 여기 있다”라고 하였고, 피해학생 2.가 “아직 결혼 안했어요.”라고 하자, 피조사자가 “소개를 해주던가”라고 지나가는 농담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학생 2.는 2018. 9.경. ○○교육지원청에 피조사자가 ‘어머니에 대해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을 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이듬해인 2019. 3.경 피해학생 1.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 3) 사건요지 1), 2)에 대한 종합 판단

2019. 3.초경 발생한 사건요지 1)과 2018. 9.경 발생한 사건요지2)를 같이 살펴보면, 두 사건 모두에서 남교사인 피조사자가 여학생들의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나이, 직업 등)를 하였고, “어머니(엄마) 소개”라는 말을 하였다. 사건요지 1)과 2)의 차이는 “소개” 발언 이후, 사건요지 1)에서는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들과 술을 같이 마시겠다”는 말을 추가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피조사자의 위와 같은 발언 이후, 피해학생 1.은 바로 화를 내지는 못했고, 표정이 굳어져서 “네”하고 말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당시 기분이 좋지 않아 기숙사로 돌아가 동료 학생들에게 이야기 했고, 피해학생 2.는 식사자리에서는 더 이상 식사를 하지 않았고, 울면서 ○○교육지원청에 전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피해학생들이 현재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당시의 기분과 피조사자의 발언 이후 취한 행동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조사자는 위 1),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피조사자의 주장을 신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피조사자가 2019. 3.초경 피해학생 1.과 상담하면서 ‘어머니 친구 소개’,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들과 술을 마시겠다’라고 발언하였으며, 2018. 9.경 피해학생 2.와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 소개’라는 말을 하였다고 판단한다.

남성교사가 여학생에게 ‘여성 소개’를 언급하는 것은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이 말을 들은 여학생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학생의 어머니 혹은 어머니 친구들이 소개의 대상이 된다면, 여학생이 느끼는 수치심과 모욕감은 더 심각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개시켜준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들과 술을 먹는다’는 발언 역시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피해 여학생이 느낀 수치심과 모욕감은 피해학생2.가 2018. 9.경 읍면서 ○○교육지원청에 전화한 사실로도 인정할 수 있다.

피조사자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조사자는 피해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여, 피해학생들과 피해학생 부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 다. 소결

위와 같이, 피조사자는 피해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인격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해당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

### Ⅲ. 결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19. 5. 27.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박정현 (인)

## [붙임1]

### 관련 법령

####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